

128. 도시락 급식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만성습진

성별 여 **나이** 52세 **직종** 도시락 급식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이OO는 2006년 11월부터 OO지역 자활센터에서 총무 회계업무를 맡아서 근무하던중 2007년 4월 중순 경 만성습진으로 진단받았다. .

2.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이OO은 계속 사무직으로 일하여 왔으며 22세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5세에 에스콰이어의 사무직으로 일하였고 29세에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1999년부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의 일환으로 OO자활센터에서 사무직으로 고용되었다. 현재의 사업장은 OO자활센터 소속으로 2006년 11월 1일 본 사업장에 개건되어 급식센터 총무회계업무를 하였고 도시락 이벤트나 인력부족 시 도시락 포장업무 보조를 하기도 하였다. 급식센터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8시- 오후 5시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하였으며 한달에 두세번 정도 오후 8시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현재의 사업장은 2007년 3월 새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여 입주한 곳으로 전체 64평 가량의 한 개의 공간을 철제벽을 설치하여 각 실로 나누고 있었다. 모든 공간에 외기와 통하는 창문이 없으며 하나의 공조시스템으로 되어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이OO는 2007년 3월 30일 사무실 이전 후 4월 중순경 배와 엉덩이, 등 부위에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2007. 4. 17 김재준 피부과 방문, 접촉성피부염 진단으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병변 부위가 점점 더 넓어졌다. 2007. 8. 17 O피부과에서 전신성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추정진단으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2007. 9. 22 OO병원 방문 당시 가슴, 배, 등을 포함한 몸통부위에 다양한 크기의 홍반성 인설반(erythematous scaly plaques)과 태선화 (lichenification)가 관찰되었으며 만성습진으로 진단,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이OO는

- ① 2007년 4월경부터 증상이 시작된 만성습진으로 진단받았고
- ② 2007년 3월말 사업장이 이전한 이후 생겨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 ③ 피부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개인적 요인을 찾을 수 없었으나
- ④ 실내 공기질과 만성습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 ⑤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 중 접촉으로 접촉피부염을 일으키기엔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OO 근로자의 만성습진은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